

자유초대석

안정희 강원도지부 여성협의회장

“전국에서 제일가는 여성회로 우뚝설 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수동적인 봉사와 국가의 지원 아래 움직이는 자원봉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책임감과 즐거움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활적인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결과, 제6대 강원도지부 여성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안정희(56세·사진) 회장의 첫마디다.

안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대롱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강원여성의 화합과 발전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조직으로 우뚝 서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여성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강원 철원군지회 여성회원으로 연맹과 인연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족



과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7월 31일에는 철원군지회 여성회장으로 임명돼 여성회의 기본사

직화합에 앞장섰다. 철원은 백마고지전적지, 제2땅굴, 평화전망대 등으로 이름난 안보관광지로서 전국 회원들이 사시

철원골프협회 여성회장, 철원군속녀회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철원군연합회 회장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는 지역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녀는

동도 크게 기대된다.

한편 안 회장은 취임식과 겸해 열린 ‘제9회 강원도 시·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첫걸음으로 18개 시·군지회 회원들과 대면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도내 전지회를 순방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회원들과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조직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앞으로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감싸주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지회 여성회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지부 여성협의회와 지회 여성회는 안 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안정희 신임 회장의 리더십이 2만여 강원 여성회원들의 땀방울과 조화를 이뤄 전국 최고의 조직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6월 30일 취임식 갖고 적극적 리더십 발동 “그늘진 곳 보듬어 ‘행복한 강원 만들기’ 최선”

업을 활성화하며 자연보호 캠페인, 청소년지킴이 캠페인, 안보전적지 환경정화활동 및 안내도우미 등 지역봉사와 조

원들이 철원을 찾을 때마다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며 도우미를 자처했다. 철원군변영회 수석부회장과

‘봉사를 안 하곤 못배긴다’는 타고난 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발자취로 보아 강원도 지부 여성협의회회장으로의 활



6·25 천안 7·8전투 전몰 미군용사 추모식 개최

천안지회, 미 육군 제24사단 34연대 용사들의 넋 기려



6·25전쟁 당시 천안 전투에서 산화한 전몰미군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6·25 전쟁 천안 7·8전투 전몰미군용사 추모식’이 7월 8일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삼릉동 마틴공원에서 거행됐다. 연맹 천안시지회(회장 장규웅)가 주관하는 추모식에는 서철모 천안부시장과 박찬우 국회의원, 전종환 천안시의회의

장, 채순희 충남 동부보훈지청장, 임완묵 천안교육지원교육감을 비롯해 보훈단체와 군·경 관계자 그리고 미군을 대표해 스콧 뮐러(Scott W. Mueller)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사령관과 공보처장, 미군 장병 45명, 연맹 회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이국땅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미군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7·8전투는 북한의 기습남침 저지를 위해 7월 3일 일본 규슈에서 긴급 투입된 미군 24사단 34연대(스미스부대)와 북한군이 1950년 7월 8일 천안 시가지에서 벌인 전투이다. 당시 압도적인 북한군의 전력에 밀려 제34연대원 129명이 전사했다. 천안 7·8 전투를 기억하고 마틴 대령

과 전몰장병 129명의 죽음을 기리고자 천안시는 구성동~삼릉동~도리티 고개 구간을 ‘마틴의 거리’, ‘마틴 사거리’, ‘마틴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1981년 7월 8일 한국자유총연맹(당시 한국반공연맹) 주관으로 추모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매년 추모행사를 거행해 왔다.

이후 1990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합동 행사로 개최해오다 2000년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가 천안시로부터 추모공원 사용승인을 받아 공원을 조성하고, 2008년 추모탑을 이전 재건립한 후 이 곳에서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다.

이날 추모식을 주도한 장규웅 천안시지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